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문화예술섬 초심 잃었나… 실행전략 논의 감감

민선 6기 제주도정 추진 밝혀
원지사가 직접 6대 정책 발표
섬축제 부활 등 사실상 무산돼
동력 떨어지며 7기 들어 뒷전
"특별법 제도개선 반영 추진중"

제2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2013~2022)에 이어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도 '구호'에 그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선 6기 제주도정을 이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중점 전략을 발표하고 제주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를 냈지만 민선 7기에 들어서는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제주연구원 10개년 보고서 작성=2016년 8월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역 문화예술 기관·단체장들과 동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를 동아지중해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제주의 문화예술 브랜드 세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주세계섬문화축제 부활 추진 등 6대 정책 사업을 제시했다.

이중에서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진통 끝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개원으로 결실을 맺었고 창작활동 융자제도, 제주어 병기 의무화도 추진 계획이 뒤따랐다. 문화예술 전문직렬 신설은 제주도문화진흥원장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며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섬문화축제 부활, 예술종합학교 유치 등은 긍정보다는 부정 여론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가시적 효과가 큰 이들 사업이 무산되면서 문화예술의 섬 전략도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 해 제주연구원에서는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2026년까지 최대 10개년을 추진 기간으로 정해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관련 제도 정비와 행정 지원체계 구축, 문화예술의 섬 환경 기반 조성, 문화예술 창작 인력과 매개 인력 양성,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관광산업 연계 지원 등 4개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중점 과제에 딸린 핵심 과제는 총 20개에 이른다.

▶사업별 추진기관 명시 무색='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 핵심 과제에 포함된 문화예술의 섬 조성 기반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추진, 문화행정 전문가 제도 도입 정도를 빼면 다수의 과제가 사장되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정책의 컨트롤타워 운영 조직 정비를 위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문화재단(가칭) 재편, 문화예술의 섬 조성 추진단 신설, 문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생태예술농장 운영, 글로벌 창작 인력과 매개 인력 양성 등이 한 예다.

특히 제주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지역의 공공 문화예술기관 등 사업별 추진기관이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문화예술의 섬 전략 논의가 해당 기관에서 이루어져 왔는지 의문이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제주도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안건으로 다룬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문화예술의 섬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활성화 전략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새로 구성될 도문화예술위원회의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제주시 도두동 주민자치위원들이 한들굴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암동굴 탐방 세계유산 화산섬 가치 공유

지오제주연구소 올해 두번째
용암동굴 환경아카데미 운영

사단법인 지오제주(Geo-Jeju)연구소(대표 김범훈)가 '화산섬 제주 용암동굴 환경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지오제주연구소는 지난 14일 제주시 도두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임승규) 위원 16명을 대상으로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들굴 탐사체험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한들굴은 천연기념물 소천굴과 더불어 제주 서부지역 최대의 동굴시스템을 이루는 한림 망오름 용암동굴계의 한 축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제주도 지원으로 매장문화재인 비공개 용암동굴을 공식적으로 탐사하는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이다. 제주는 2007년 이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화산섬을 자랑하면서도 '일등공신'인 용암동굴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축산폐수 등에 의한 용암동굴 오염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지오제주연구소는 이같은 원인이 '동굴환경 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지난해 처음 용암동굴 환경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지오제주연구소는 연말까지 제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동굴의 다양한 지형과 지질, 생태환경의 이론과 현장교육에 나선다. 작년에는 도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8곳을 비롯 종교인·문화예술인·의료인 등 모두 합쳐 159명이 아카데미에 참여했다.

김범훈 대표는 "용암동굴 환경아카데미를 통해 동굴오염을 차단하는 생태계 보호노력의 필요성과 제주의 청정 지하수 환경보존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물빛 그림에 실제 풍경 너머 마음 세상

제주문인화연구회 참여
광주한국화실사회 교류

제주와 광주의 작가들이 제주에서 물빛 그림으로 만나고 있다. 제주문인화연구회(회장 장경모)와 광주한국화실사회(회장 이재민) 공동 주최로 이달 20일까지 제주도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열리는 '광주-제주 수묵화 교류전'이다.

광주한국화실사회는 중진·원로 작가로 구성된 단체로 매달 야외스케치를 하면서 실제의 풍경을 그림에 담아오고 있다. 제주문인화연구회는 실사가 아닌 사의(寫意), 즉 사물에 담긴 내용이나 정신에 치중해 마음 상태를 품은 그림세계를 주로 펼쳐왔다.

'수묵의 상(象)'이란 이름을 단 이번 전시에는 제주와 광주 작가 40명씩 참여했다. 표현방식이 다르지만 동양화라는 큰 틀 속에 사유하는 그림을 만날 수 있다.

지난 16일 열린 개막 행사에서는 제주문인화연구회 운영자 최형양 문인화가, 광주한국화실사회 운영자 김인화 작가의 현장 휘호가 펼쳐졌다. 문의 064)710-763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문인화연구회 김승환의 '자국'.

제주문예재단 5개년 중기 추진전략 수립

2020~2024년 기간으로
전략 과제·목표 설정 등
내부 공감대 작업 병행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문화예술사업 중기 추진 전략을 만든다. 제주문예재단은 17일 "제주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지역 여건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문화예술사업 중기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기 추진 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 전략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다. 5500만원이 투입되는 용역에는 ▷종합적인 문화예술 사업 중기 추진 전략 ▷외부 정책 환경, 내부 역량, 제주문예재단 이슈 등 대내외 환경 분석과 진단 ▷인력과 재정 계획을 포함한 중기 운영계획 ▷사업 추진 전략과 경영목표를 연계한 전략 과제, 연도별 목표 설정과 로드맵, 환류 평가 계획을 포함한 중기 추진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부 인터뷰나 설문조사만이 아니라 추진 전략에 따른 내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작업도 이루어진다. 제주문예재단 임직원과 그룹 인터뷰, 개별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문예재단 측은 "정부 정책, 제주도 문화정책, 경영평가 결과에 대응하고 사업 추진 전략에 따른 인력, 조직,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최근 업체가 선정된 만큼 조만간 용역에 착수해 5개월 안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쪽지

제주앙상블 준 정기공연

제주앙상블 준 제25회 정기연주회가 18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음악여정'이란 제목을 단 공연에는 피아노 이동용 백진호, 바이올린 강슬기 김재현 강민영 김상아, 비올라 변정인, 첼로 김지영 오성종이 출연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삼중주 '애가', 쇼스타코비치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 브루흐의 '피아노 5중주 g 단조'를 연주한다. 문의 010-9132-8814.

이지유 사진전 '동양극장'

제주시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지유 작가가 '동양극장'이란 이름으로 사진전을 열고 있다.

회화 작업을 주로 해온 이지유 작가는 앞서 '동양극장'을 그림에 담은 일이 있다. 현재보다는 과거의 초상이 연상되던 그림과 달리 이번 사진전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지금, 여기의 동양극장과 그 주변에 눈길을 뒀다. 전시는 이달 23일까지 갤러리카페 다리. 문의 064)726-2662.

공예품 공모전 접수 연장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은 제주도 후원으로 진행되는 제49회 제주도 공예품 공모대전의 온라인 접수 기간을 6월 20일까지 연장했다.

온라인 접수는 대한민국공예품대전 홈페이지(https://kohand.smplatform.go.kr)를 이용하면 된다. 실물 접수는 이달 22일 오전 11~오후 4시 문예회관 제3전시실에서 이루어진다. 당선작은 6월 24~27일 문예회관 제3전시실에서 전시된다. 문의 010-7204-8876.

제주 신화 놀이터 인형극

제주교육박물관은 6월 18~21일 박물관 뮤지엄 극장에서 4회에 걸쳐 '2019년 제주 신화 놀이터 인형극' 2차 공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형극은 '구연동화로 만나는 제주의 창조신 설문대 할망'을 주제로 교육박물관에서 자체 발간한 동화책 '어린이가 읽는 제주 신화 이야기(1, 2)'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설문대 할망, 제주를 만들다' 등 제주 신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문의 064)720-9121.